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삶을 아름답게 채색하라

청하이 무상사 / 2000년 5월 10일 한국 영동센터 국제 선육 (원문 영어)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난 뒤 우리의 경지가 좀더 높아지면 삶에 대한 흥미를 아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일들을 하지만, 삶에 대해 집착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남자친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건 이미 섹스와 같은 것들에 대해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별 흥미 없어한다는 것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그 역시 재미가 없어질 겁니다. 또는 '여자친구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둘 다 싫증이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지나치게 진지한 체 말고 그냥 즐겁게 지내세요. 우리도 이제 겨우 자신이 성인(聖人)이라는 걸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고 있는 것 같군요.

우리 삶에 수행이 덧붙여진 것 뿐, 그 외 달리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 늘 성인(聖人)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즐기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부처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내가 부처라는 이유로 "꽃은 필요없어요! 꽃의 아름다움은 잠시뿐 영원하진 않아요. 내일이면 시들 텐데, 날 위해서는 아무것도 놓지 마세요. 모든 것은 환상이고 마야일 뿐이에요"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지요. 난 그냥 그것을 즐기며 꽃이 아름답다는 걸 알지만,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내게 꽃을 줘도 괜찮고, 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기대도 갖지 마세요. 이런 저런 식으로 무언가 이뤄지길 기대하지 않는다면 실증나거나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공원을 다니든, 뭐든지 하며 그 순간을 즐기십시오. 좀 로맨틱해 보세요! 함께 달구경을 하거나 편지를 쓰기도 하고, 못생긴 그의 얼굴에 물감 칠을 하며 놀리며 즐겁게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그냥 세상과 어울려 보세요.

내가 어제 지겹다고 한 것은 일시적인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내 방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하루 종일 설명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지요. 난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고치고 속

옷을 찾는 따위의 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 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복잡하게 처리해 놔서 난 이 모든 하찮은 일에 싫증이 났어요. 하지만 삶에 싫증이 났다거나 여러분이 지겨워진 건 아닙니다. 난 여러분과 만나서 아주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관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개인과 보낼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여러분 개개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각자 빨리 발전해야만 하고 또한 이웃들이 발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세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재난이 너무 빨리 닥치지 않도록,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신성을 기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보낼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은 모두 놀라운 창조물이고, 아주 멋진 시집이며,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것, 진정한 역사를 가진 진정한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진정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여러분은 남자친구의 훌륭한 견해와 그의 좋은 품성, 그가 가진 놀라운 내면의 지혜와 본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보물들을 찾아내 즐겨야 합니다.

단지 외면만 보서는 안 됩니다. "출가를 하면 더 빨리 성인이 되거나 더 빨리 깨달을 텐데 멋진 남자친구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지 않아요. 어떤 관계에서든 쏟아 부은 걸 얻기 마련입니다. 그건 삶이나 깨달음, 다른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현실로 창조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변화시켜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머리 모양을 바꾸고, 화장에 변화를 주고, 입는 옷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무언가 바뀌 더 멋지고 더 흥미로운 삶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생활의 맛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표지 안쪽 / 스승님 말씀

삶을 아름답게 채색하라

2 다채로운 이벤트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체코/ 아르헨티나/ 파나마/
한국/ 싱가포르/ 홍콩/ 포모사/ 호주

10 시

생명의 푸른 물줄기

11 / 17 스승님의 농담

거지 마누라의 직업/ 초상화가 증거/ 너무 이른 쇼핑/
때가 되었습니다!

12 수행의 길목에서

스승을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넌 여행

13 이야기 세상

모든 중생에겐 불성이 있다

14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새해, 새사람, 새마음

18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생일 잔치/ 입증/ 신의 키스/ 화재에도 끄떡 없는 사진/ 마음의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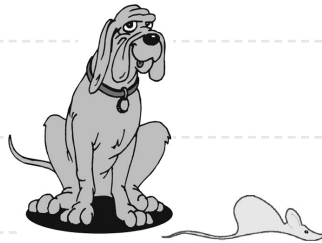
20 / 40 감로법어

21 추천 영화

네번째 현자

2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쥐잡는 개



24 어둠속의 등대

코스타리카 / 감사편지/ 포모사/ 엘살바도르 약물치료소에서 온 편지

28 사랑의 실천

헝가리/ 미국 텍사스/ 미국 캘리포니아/ 한국/ 포모사/ 엘살바도르

39 매체보도

El diario Extra of Costa Rica/ 엘살바도르 월드 이브닝 뉴스/
엘살바도르 그래픽 프레스

40 신기한 감응

최고의 선물

뒷표지 / 영혼의 고양이



우리의 친구의가 순수하면, 우리 몸도
편안하고 깨끗하게 느낍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19호

출판일자 : 2001. 11. 18.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
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소식

신성한 음악시 서아프리카에 슬며져 퍼지다

[토고] 서아프리카 동수들은 전 세계 다른 동수들처럼 스승님을 뵈고자 하는 갈망이 대단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국제 선행사에 참가하지 못한다. 1월 1일 100여 명의 토고와 가나 동수들이 토고 센터에 모여 축하행사를 열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스승님의 크리스마스와 새해 선물인 사랑이 듬뿍 담긴 자필 연하장이 팩스로 도착했다. 스승님의 자애로운 축복과 함께 동수들은 “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세상”과 “음악과 시가 있는 밤- 과거의 발자취와 연가” 공연 비디오를 보고 특식 중국 요리를 먹으며 즐겼다.

스승님을 한 번도 뵈지 못한 동수들은 스승님을 뵈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스승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으며 스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토고 센터의 몇몇 동수들이 “어린 양은 집으로 돌아가고파”라는 중국 노래를 불러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스승님이 몇 년 전 동수들과 함께 부른 이 노래를 몰래 연습해 왔는데, 아름다운 노래 솜씨에 많은 갈채를 받았다. 발음은 둘째치고 너무나 신실하고 감동적인 그들의 목소리로 인

해 행사장은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찾고 찾았네”라는 대목에서는 동수들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작은 단체의 사람들은 유년 시절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줄곧 신을 찾아온 동일한 인생의 이상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구도의 과정에서 물질적 욕망을 버려 가진 것이라곤 초라한 오두막과 신에 대한 갈망이 전부인 그들은 소중한 젊음과 에너지를 다른 영적 단체와 함께 봉사 활동을 하는 데 바쳤지만 스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과연 신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방황하던 그들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고 그들의 갈망에 찬 가슴은 소망을 이뤄 마침내 길고 긴 20여 년 간의 기다림과 방황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그 감정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서서히 전이되었다.

가나 동수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토고 동수들과 함께 노래하였다. 모두들 그들의 열망에 감동을 받았다. 간간히 즉석 공연을 곁들이며 찬송가를 시작으로 수행가곡을 계속해서 불러나갔다. 그들은 활발하고 힘찬 아프리카 리듬에 맞춰 신을 찬양하고 스승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스승님을 뵈지 못해 스승님과 다소 거리감을 가지고 있던 동수들은 이제 스승님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 스승님, 이토록 특별하고 따뜻한 새해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프리카 소식

신실한 구도자에게 축복을!

[우간다] 누가, 언제, 어떻게 우간다에 스승님의 영

문 견본책자를 놓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 10년 동안 그 책자를 소중히 간직해온 한 신실한 구도자는 누군가 그에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관음법문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책자에 적힌 연락처로 끈질기게 편지를 보내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동수가 우간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고 우리 국외조는 입문신청을 계속 요청해온 이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 동수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



이 구도자의 꿈은 우간다를 방문한 관음사자가 해탈에 이르는 최고의 법문에 그를 입문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관음사자는 축복 받은 다른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줄 견본책자와 새 뉴스잡지 등의 영적 선물들도 함께 가져갔다.

우간다에서 일하게 된 그 남아공의 동수는 많은 구도자들이 방편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인도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예비입문자들은 지붕도 없는 열악한 진흙 오두막에 비좁게 모여 앉아 단체 명상을 했다. 뉴스잡지와 몇 개의 비디오 테이프, “즉각 깨닫는 열쇠” 두 권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할 매체의 전부였지만, 그들에겐 깨달음과 해탈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갈망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직전 우간다를 다시 방문한 관음사자는 이 지역의 예비입문자들 대부분이 20여 년 이상 채식해왔으며, 그 중에는 모태에서부터 채식해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채식은 우간다 고유의 관습으로 최근 육식을 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를 제외하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바나나를 주식으로 하는 고유한 식습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새 우간다 동수들은 아직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동수들이 우간다 동수들의 단체 명상 센터에 지붕을 얹고 스승님 비디오 시청을 위한 텔레비전을 보시를 하다.



도 항상 축복에 젖어 살고 있었다. 관음사자가 최신 뉴스 잡지를 나눠 주자 어떤 사람들은 잡지를 꼭 잡고는 “스승님! 스승님!” 하고 나지막하게 불렀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부르듯 매우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보였다. 관음사자는 그곳을 떠나면서 한 사자에게 스승님의 브로치를 기념으로 줬다. 그녀는 브로치를 양손으로 받으면서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축복을 받은 모든 신실한 구도자의 눈과 말에서는 스승님의 그들에 대한 무형의 사랑과 축복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아름다운 빅토리아호 옆에 위치한 우간다는 훌륭한 자연경관으로 축복 받은 나라이다. 풍요로운 생활은 아니어도 식량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우간다의 좋은 기후 덕분에 바나나와 옥수수, 사탕수수가 넉넉하게 생산된다. 신은 우간다를 사랑하지만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간

다 역시 에이즈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 역시 사람들의 공업(共業)이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하여 채식과 영적 수행의 중요성을 알고 5계를 기본적인 생활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점점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체코 소식

프라하 관음가족의 성장

[프라하] 1999년 스승님의 프라하 방문 이후 프라

하 센터 근처에 사는 한 그룹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음가족에 합류해 명상하기 시작했다. 평생 최고의 명상법문을 찾



체코 프라하의 동수들이 ‘조화’ 전시회에 참석하여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 해매긴 했어도 이전까지는 관음법문과 스승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입문하여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고 난 후 이것이 진정한 법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체코의 입문자들은 개개인의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또한 그들 주변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는 다른 구도자들에게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협회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등록하였다.

얼마 전, 각종 생활양식의 ‘조화’ 전시회가 프라하에서 열렸다. 스승님의 축복에 이끌린 사람들이 스승

님과 관음법문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우리 부스로 찾아왔다. 전시회 기간 동안 600여 권의 전본책자가 나갔고, 나흘 후에는 프라하 아동극장에서 관음법문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강연회가 열렸다. 스승님의 음악 덕분에 극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충만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우리는 모두 한 입문자가 준비한 맛있는 멕시코 굴라시 요리를 맛보았다. 이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게 되어 우리 프라하 가족은 차츰차츰 성장하여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소식

생체문화 박람회에 참가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센터는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 생체문화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 박람회에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생활로부터 자신들을 고양시키고자 건강하고 단순한 삶을 열망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영성에 관한 출판물들뿐 아니라 건강식과 유기농 음식, 기존의 약품을 대체할 요법 등을 제공했다. 우리 동수들도 부스를 얻어 작은 노력으로 벽찬 사랑의 진동을 얻을 수 있는 관음법문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5일간의 전람회 동안 사람들은 전단지를 나눠 주는 많은 예비입문자들의 신실함과 형제애에 감동을 받았다. 계속해서 상영된 스승님의 비디오로 행사장은 스승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며 모든 방문객들이 하나가 된 듯 했다.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에 서서 스승님의 사진과 비디오에서 퍼져 나오는 자장으로 인해 매우 아름다운 영적 수행자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 부스에 들린 몇몇 잡지 및 신문 편집장 중 한 사람은 뉴욕에서 우리 전단지를 받은 적이 있어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건강요리 식당을 경영하는 한 여성은 오래 전 자기 식당에 비치된 스승님에 대한 전단지를 읽은 후

스승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감하곤 식당 손님들에게 그 전단지를 기쁜 마음으로 나눠 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번 박람회에 우리 부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찾아와 비디오를 보며 스승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오랫동안 부스에 머무르며 동수들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그 외 이번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한 한 인도 남자가 우리를 방문하였다. 아난다 마르가 (인도 수행단체의 하나)의 출가자인 그는 우리 스승님이 높이 깨달은 분이라고 하며 자신 또한 깨달은 스승을 따르고 있지만 깨달은 스승은 모두 하나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였다. 다음날, 그는 친구를 두 명 데리고 와서 스승님



부에노스아이레스 동수들이 생체문화 박람회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의 가르침을 소개해주었다. 그들 모두 견본책자를 받아가며 우리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레이키(일본의 치유법문)를 수행하는 한 여성은 매우 흥분된 모습으로 우리 부스를 찾아와서 스승님이 이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다면서 관음법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그 외 다른 두 여성도 비디오를 본 후 스승님의 지혜에 매혹되어 바로 입문신청을 하였다.

박람회 폐장 전날, 사설 TV방송국의 영성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이자 리포터인 한 남자가 우리 전시대를 찾아 왔다. 그는 스승님의 아름다움에 대단히 감명 받았으며 스승님을 직접 만나 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평화로워야 모두 평화로워진다”는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박람회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이 수천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졌을 뿐 아니라 우리 동수들은 공동작업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스승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일을 해나갈 수 있었다.

진리를 전한 영상 강연회



아르헨티나 동수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끼오 미시마 문화센터에서 스승님의 강연 영상 강연회를 개최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주제로 영상 강연회를 열었다. 우리는 박람회 기간 동안 전단지마다 강연회 초대장을 끼워 나눠주고 문화센터 주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돌리고 지역신문에 강연회 광고를 냈다.

강연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방문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모두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주의 깊게 시청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는데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강연회가 끝난 후 모두들 맛있는 채식뷔페를 즐겼다.

문화센터의 고위책임자는 우리에게 다음 강연회 때에도 이 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해주어 2001년에는 매달 이 센터에서 영상 강연회와 채식요리 시식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구도자들이 찾아오다

그 다음 일요일, 우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센터를 찾아올 신실한 방문객들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안배했는데



구도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센터를 방문해 방편법을 배우다.

우리 예상을 훨씬 초과한 방문자들이 찾아왔다. 방문객들 중에는 생체문화 박람회에 참석했거나 영상 강연회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다. 손님들을 맞이 위해 동수들은 센터의 가구들을 옮겨야만 했다.

방문객들은 비디오를 보며 간혹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하기도 했다. 아내와 자녀들을 동반한 한 남자가 자신의 아이들이 매우 영적이고 어릴 때부터 육식을 싫어했다고 하자 몇몇 동수들이 명상을 배우기 전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향을 일러주었다.

그 날 참석한 성인들은 모두 방편법을 신청했다. 그 중 멀리서 온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로 돌아가 열심히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런 활동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동수들은 이 나라에 쏟아지는 스승님의 축복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파나마 소식

신의 복음이 파나마를 빛내다



파나마 '엘 유니버설'지에 실린 강연회 대형 컬러 광고



파나마 RPC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 디디아 갈라도씨가 스승님의 견본 책자를 받고 동수들과 포즈를 취하다.

안 많은 청취자들이 마음의 평정과 만족,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내면의 빛과 소리의 수행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견본책자를 얻고 싶어하자 진행자는 라디오 방송국에 와 책자를 받아가라고 알려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량의 견본책자와 잡지, “신의 언어를 회상하라”는 스승님의 훌륭한 강연 내

[파나마] 최근 이곳에 도착한 관음사자는 파나마의 신실한 구도자들을 위해 두 차례의 입문식과 한 번의 영상 강연회를 열었다. 이 행사들을 위해 멋진 포스터를 인쇄해 슈퍼마켓에 붙이고 대중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파나마의 최대 유력지인 엘 유니버설은 강연회와 스승님, 관음법문, 그리고 그 이로움에 대한 대형 컬러 광고를 기준가의 25%의 광고비만으로 실어 주었다.

파나마 대형 방송국 중 하나인 RPC 라디오는 이 행사의 종합적인 보도를 위해 우리와 인터뷰했다. 프로그램이 45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용이 담긴 전단지를 방송국으로 보내 주었다.

영상 강연회는 1월 16일 파나마 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어떤 행사든 1시간 정도는 늦게 도착하는 이 나라의 문화습관과는 달리 일찍 도착한 청중들로 인해 강연 예정 시각인 오후 6시가 되기도 전에 좌석이 모두 찼다. 대중의 신실함과 갈망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다. 계속해서 도착하는 사람들로 인해 의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결국 온 강당이 꽉 차게 되었다.

그 결과 에어컨 시설이 엄청난 수의 관중을 감당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연신 땀을 흘리면서도 스승님의 훌륭한 강연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영상 강연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시작하고자 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기 위해 등록을 했으며 입문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으로 인해 강연은 예정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끝났다.

강연이 끝난 후 우리는 예비입문자들에게 매주 있는 센터의 방편 수행자 단체명상에 참석할 것을 권했다. 그들은 연락처를 남기며 우리에게 계속 연락해 줄 것을 희망했다. 다음날 저녁, 여러 입문자들이 엄청나게 밝고 아름다운 빛이 구름 사이로 비추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상서로운 계시라고 굳게 믿고 있다. 스승님이 언젠가 말씀하시길 영적 수행자들의 수가 적어도 그 영향력은 아주 멀리까지 미친다고 하셨다. 우리는 많은 파나마 사람들이 진지하게 수행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또한 강연회 소식을 널리 알린 지역 언론사와 방송국의 열정적인 지원과 스승님의 포스터 부착을 허락해준 많은 슈퍼마켓에 감사한다. 이런 큰 지원과 많은 사람들의 깊은 헌신으로 파나마 하늘은 앞으로 매우 밝게 빛날 것이다!



영상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



한국 소식



방문객들이 채식 요리를 맛보고 있다

춘천 영상 강연회

[춘천] 12월 16일 춘천에서 영상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센터가 없는 춘천에서 관음법문을 흥법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울 동수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동수들은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고 포스

터를 붙이고 거리에 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스승님의 대형 포스터가 건물 벽에 설치되자 많은 행인들과 운전자들



청중들이 스승님의 영상 강연회를 주의 깊게 시청하다

이 스승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스승님을 좀더 오래 보고자 일부러 차 속도를 늦추는 운전자도 있었다. 지역 입문자들은 강연에 참석한 손님들을 위해 다양한 요리와 음료를 준비하였다. 최고의 법문과 우리 동수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놀라워한 손님들은 강연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기쁜 표정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이 날 뿌린 씨앗이 어서 성장하여 이 호반의 도시를 푸른 숲으로 감싸길 기대했다.



싱가포르 소식

스승님 영상 강연회 & 예술 창작품 전시회

[싱가포르] 2000년 12월 30일, 스승님의 축복으로 싱가포르 센터는 스승님의 첫번째 영상 강연회를 준비했다. 행사가 열리기 바로 전 토요일인 12월 24일, 강연 준비 팀들이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행사지로 향하는 매스 래피드 트랜짓의 각 역들에 도착하였다. 행사장이 싱가포르 비즈니스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출근하는 많은 회사원들은 특별히 아름답게 제작된 전단지들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동수들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열성적으로 자원하여 동참했는데, 그 중에는 나이 어린 동수들도 있었다. 한 시간 남짓 지나자 준비했던 전단지가 모두 배포되었고 동수들은 많은 싱가포르인들에게 스승님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해 했다.

강연회가 있는 주에는 다양한 일을 맡은 동수들의

도움으로 스승님의 창작품 전시를 비롯한 더 많은 준비작업들이 마무리되었다. 행사 사흘 전 관음사자가 도착해 작업팀들은 더욱 큰 힘을 얻었다. 단체명상 시간 때마다 명상홀을 가득 채운 동수들은 이번 행사가 성공을 거두길 바라며 스승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강연회 당일에도 아침 일찍 단체명상을 끝낸 동수들은 많은 지하철역에서 변함없이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그 때에는 이미 사람들이 조간신문에서 우리 행사에 대해 읽은 터였다. 작업팀들은 아침 10시에 행사가 열릴 DBS(싱가포르 개발은행) 회관에 도착했다. 부지런한 꿀벌처럼 동수들은 전시관을 재빠른 솜씨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며냈다. 스승님의 축복이 행사장에 충만해 동수들은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었다. 강연장에 도착한 방문객에게는 견본책과 잡지를 나눠 주었다. 스승님의 그림과 책, 천상의 보석, 옷, 만세 등에 감탄한 방문객들은 스승님이 만든 예술작품들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전시장을 떠나지 못했다. 전시장 양쪽 끝에 설치된 TV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스승님과 우리 단체를 소개하는 짧은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행사장을 매워 가는 대중들로 인해 화기애애한 실내분위기는 점점 고양되어 갔다



강연장 안에서는 스승님을 소개하는 짙막한 비디오가 상영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수백 명이 이미 주강당을 가득 메워 뒤에 도착한 사람들은 위층 관람석에 앉아야만 했다. 1999년 스코틀랜드 강연이 상연되는 동안 청중들은 주의 깊게 시청하였으며 스승님이 일어나 청중들에게 작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많은 청중들이 종이에 질문들을 적어냈다. 질문은 모두 영적 수양에 적절하고 유용한 것들이었다. 마지막 질문은 그 날 66번째 생일을 맞이한 노신사였는데 그는 이번 영상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으며 1995년에 있었던 스승님의 싱가포르 강연에도 참석했었다고 했다.

관음사자는 참석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주었고, 끝날 무렵 청중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청중들의 질문은 그들의 신실한 구도심을 그대로 나타내었고 휴식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내 데스크에 몰려 관음법문에 대해 묻고 싱가포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영상 강연회가 끝나고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기 위해 머물렀다. 참석했던 모든 동수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 대단한 만족감과 축복을 느꼈으며, 이 모든 성공이 스승님의 영광 덕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청중들이 싱가포르 강연회장을 가득 메운다



스승님의 창작품 전시회



강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이 스승님의 간행물에 깊은 관심을 표하다



홍콩 소식

황금시대에 해외 쇼기가 되다

[홍콩] 우리는 천상의 보석, 천의 팀이 홍콩에서 1월 6일과 7일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몹시 행복했다. 스승님의 보석디자인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슬라이드 쇼가 준비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금까지 디자인된 천상의 보석 시리즈들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비교적 완벽한 전시회가 되었다. 천상의 보석들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고 모두들 스승님께 감사해했다. 천상의 보석은 정말 예술적이고 영감으로 가득했다. 같은 디자인이라도 착용한 사람에 따라 다른 미감

을 자아냈다.

스승님은 여러 상황에 알맞은 다양한 천의를 만드셨다. 천상의 로고가 새겨진 스카프를 두르기만 해도 누구든 스승님을 기억

하고 스승님의 축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전시장은 다양

한 색상과 천으로 제작된 해피요기 천의로 눈부시게 빛났으며, 그 자리에서 옷을 입어본 많은 동수들은 해피요기 전시장의 발랄하고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오후에 차를 제공했는데 모두들 '천룡 차 주전자'로 끓인 매우 특별한 차를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이를 동안 천의와 천상의 보석을 걸쳐보고 차를 마시고 간식을 먹으며 함께 농담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홍콩 동수들이 천상의 보석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감상하고 착용할 귀중한 기회를 즐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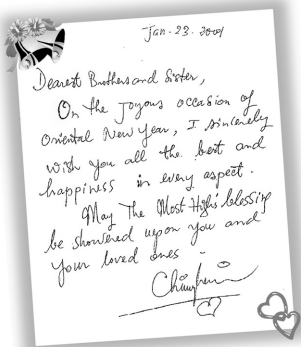
스승님의 그림 중에는 중국어로 ‘개오(開悟)’, 영어로 ‘enlightenment(깨달음)’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 이제 황금시대로 들어섰으니 우리 모두 깨달아 마

음을 열고 행복한 योग(happy yogi)가 되어 보자. 그렇게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산하다보면 지상에 천국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포모사 소식

음력설 선삼



[시후] 음력 정월 초삼일 새 천년의 도래를 축하하고 자 포모사 동수들은 시후센터에서 첫번째 밀레니엄 선삼을 개최하였다.

선이 시작하면서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으로 축복

받은 빨간 봉투(돈이 담긴 중국 전통선물)를 받아 들고는 가슴이 포근해져움을 느꼈다. 마치 신이 선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달콤한 성수를 뿌려주는 듯 선 기간 내내 이슬비가 내렸다. 이것은 “신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처럼 쏟아지기를 ……” 하고 축복하셨던 스승님의 말씀이 실현된 모습이었다. 차가운 날씨 탓에 동수들 중에는 스승님께서 디자인

하신 해피요기 겨울옷과 귀여운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이웃들의 새 천년 첫 봄이 행복하기를 빌었다.

간혹 갠 날씨를 틈 타 디자인 팀들이 만든 하늘 높이 매달린 빨강과 노랑 등은 우리에게 항상 자신 내면의 빛을 밝혀야함을 일깨워 주었다. 등 사이로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폭죽 줄들과 천상의 보석 사진을 올려만든 종이 장식들이 새해맞이 축제와 어우러져 온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삼일 째 되던 날은 마침 일요일이라 포모사의 모든 동수들과 일반인들에게 시후센터를 개방하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행운이 깃든 빨간 봉투를 나눠 주었다. 정오쯤에는 동수들과 방문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수수께끼 맞추기와 고리던지기 같은 다양한 놀이 코너들이 정문에서부터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이슬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어린이 놀이마당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동수들과 방문객들은 꽃처럼 생긴 우산 밑에 비를 피하다가도 진흙 구덩이에 즐거이 발자국을 남기기도 했다. 오후 4시가 되자 모두들 스승님의 깊은 사랑에 완전히 도취되어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센터를 떠나갔다.



호주 소식

감로수가 시드니를 적시다

[시드니] 시드니 센터 동수들은 매년 시드니 각지에서 대중에게 최고의 명상법을 알리기 위해 관음법

문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관음사자가 도착해 강연회 준비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신문,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최대한 강연회 소식을 알리고, 거리에서 나눠 줄 전단과 광고지들을 인쇄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치기 위해 지체 없이 작업에 들어갔다. 많은 젊은 동수들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단시간에 만 장이 넘는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드디어 2001년 1월 14일, 강연회 개최일이 되었다.



작렬하는 여름 햇살에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강연 회장으로 들어오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고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모든 강연회 프로그램의 주의 깊게 따라주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비디오 시청시간에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 제출된 청중들의 매우 예리하고 심도 있던 질문들이었다. 이 시간에 청중들의 신실한 구도심을 엿볼 수 있었다. 관음사자는 모든 질문에 막힘 없는 설명으로 응답해 주어 우리 기대치를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신청하였다.

다음으로 이어진 휴식시간에 참석자들은 마치 수 많은 전생에서 만났던 오래된 친구들처럼 그 지역 동수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제공한 맛있는 채식요리들을 맛보던 참석자들은 채식요리가 맛있고 진부하다는 관념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수행해 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스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보호법문을 대중과 함께 나눠 육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과를 줄이고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한없이 기뻐다. 강연회가 끝난 후에도 우리 가슴 속에는 고양된 기쁨이 남아 있었다.



청중들이 진리에 대한 신실한 열망으로 많은 영적 질문을 던지다



청중들이 진리에 대한 신실한 열망으로 많은 영적 질문을 던지다

시



생명의 푸른 물줄기

스리랑카 바하렌데 수메다 누게고다 (원문 영어)

저 넓은 창공을 바라보며
한 방울 물에 목말라 할 때
비구름을 가르며 오신 당신
내 삶의 정원을
푸르름으로 바꿔 놓으셨네

저 하늘 멀리멀리
온 우주를 떠다니며
불타오르는 가슴들을 달래는
푸른 생명의 물줄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오래오래 흐르소서



거지 마누라의 직업

칭하이 무상사 / 홍콩 선삼 1994년 4월 1일 (원문 중국어)

한 늙은 거지가 동냥 그릇을 들고 큰 시장 한 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정심을 느낀 한 노부인이 지갑에서 약간의 돈을 꺼내 주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저런, 그 나이에도 구걸을 해야 하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군요.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수? 대답을 듣자고 하는 말이 아니우. 그냥 맥의 사정이 하도 딱해 보여 나온 말이라우.”

그 말을 듣고 더욱 비참해진 거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소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물으니 더 비참해지네요! 당신을 보니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나는군요. 마누라만 살아 있었어도 구걸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 그러자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예, 부인이 수완이 무척 좋았나 보구려. 생전에 무슨 일을 했었수?” 거지가 대답했지요. “마누라가 살아 있을 땐 마누라가 대신 매일 구걸을 다녔지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었죠!”



초상화가 증거

칭하이 무상사 / 캄보디아 1996년 3월 27일 (원문 중국어)

한 남자가 돈을 빌리러 친구에게 갔어요. 채무각서에 필요한 온갖 서류 등도 함께 챙겨갔지요. 그의 글쓰는 속도가 좀 더디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에이, 번거롭게 차용증은 관두고 너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어때? 그게 좋겠다!”

“내 얼굴을 그려 뭘 하려구?” 그 남자가 묻자 친구가 대답했어요.

“나중에 내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네가 안면을 바꿀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초상화를 그려놓으면 일단 안심할 수 있잖아.”

너무 이른 쇼핑

칭하이 무상사 / 미국 플로리다 1999년 10월 3일 (원문 중국어)

한 범법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불러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소?”

“저는 설날 연휴에 너무 일찍 장을 보러 간 것뿐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잖소! 아마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오. 그래 얼마나 일찍 장보러 간 거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가게가 장사를 시작하지도 전에 이미 제가 그 안에 있었죠!”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오디오 원문으로 모든 유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스승님의 유머를 즐기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video/joke/119>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ght_sound/jokes/119



스승을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행

탄 유잉 사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원문 중국어)

2000년 5월, 나는 영동 국제선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갔다. 우리는 5월 8일에 열리는 스승님의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영동센터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중국에서 온 사저가 내 옆에 앉게 되었다.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가 비구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저는 진리를 찾아 해맨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나는 이 이야기를 글로 옮겨 동수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다.

오래 전, 그녀는 불치병에 걸려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로부터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부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그 가르침을 좋아해 그 노부인으로부터 불교경전을 몇 권 빌려 보았다. 예전에 불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으며 영혼 깊은 곳에서 그녀 자신이 '생사로부터 해탈' 하고자 평생 기다리고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병원을 떠나 즉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 당시 무작정 출가만 하면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리라 생각했던 그녀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스승을 찾는 여행이 시작되었다. 구화산과 오대산 등 온갖 유명한 산과 수도원을 다녔지만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없었다. 마침내 티베트로 간 그녀는 몇 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만 모두가 생사해탈과는 관계가 없어 보였다. 더 이상 자신이 찾아다닐 곳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진 그녀는 매일 관음보살 상을 바라보며 길을 일러달라고 일구월심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루는 우연히도 심천에서 온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영적 수행자였다. 그와 함께 마음 속 깊은 갈망과 근심을 토로하며 자신의 뜨거운 열망과 생사해탈로 이끌 어줄 스승을 찾게 될지의 불확실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수행자는 그녀와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 떠나기 전 그녀에게 주소를 물었는데 얼마 후 관음법문에 대한 열 장 짜리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 안에는 중국 돈 천 원(미화 약 120불)이 들어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심천 자신의 집에 와서 관음사자를 기다리자는 초청의 글과 함께, 그녀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두 달이나 머물렀지만 관음사자의 소식은 오지 않았다. 뜨거운 열망으로 고대했던 그녀에겐 하루하루가 일 년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관음사자가 중국 동북부 지역에 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은 그녀는 즉시 기차를 타고 36시간이나 걸려 도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시 3개월을 기다렸다. 매우 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장작을 때야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장작을 패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련을 감내하며 기다리던 중 관음사자가 난징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이번에도 즉시 짐을 챙겨 난징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가진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편한 삶을 누렸기에 그런 식으로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달랬다. 하늘은 신실한 구도자를 끝내 저버리지 않는 법, 그곳에서 4개



월을 기다린 끝에 그녀는 결국 관음사자를 만나 스승님께 입문할 수 있었다.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 헤맨 것이다. 그녀는 온갖 시련을 겪으며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 끝에 비로소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처럼 진리를 구하기 위해

굳은 용기와 두려움 없는 정신을 가진 구도자를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축복, 즉 살아 있는 스승을 따라 배우며 해탈할 수 있는 이 귀중한 보물을 가진 것에 대해 더욱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1987년 어느 시원한 여름 오후, 신실한 동수들의 간청을 승낙하신 스승님께서 몇몇 입문자들과 함께 센터에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지룽의 산악 지역을 둘러보시러 오셨다. 돌아보고 오는 길에는 지는 해가 스승님과 동수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고 그 지역 지주 소유의 닭과 양들을 비롯한 가축들이 멀리 희미하게 보였다.

그런데 우리가 농장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뒤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디서 나는 소린지 궁금해 돌아보니 희미한 햇살 속으로 개 한 마리가 조금 열려진 문과 사람 키의 반쯤 되는 울타리 뒤에서 뒷다리로 선 채 앞발로는 애원하듯 쾅쾅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개는 스승님이 쳐다보자 더 심하게 쾅쾅거렸는데 어찌나 그러는지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흘릴 뻔했다. 스승님이 잠시 다정히 달려자 개는 진정되었다.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은 낯선 사람을 보면 쫓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고 이 고해 속에서 구원해줄

스승님을 알아본 것은 그 개의 내면에 있는 불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 힘들었던 게 아닐까.

우리는 계속 지나가다가 이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목장에 이르렀을 때 한 무리의 양떼가 마치 국가행사 때 군대 서열하듯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스승님을 바라보며 맞이했던 것이다. 더 재미있는 점은 양들의 시선이 스승님이 발을 옮길 때마다 따라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양들이

살아 있는 스승의 눈과 마주치기만 해도 해탈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우리가 떠날 때 그들이 스승님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에서 우리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석가모니불이 깨닫고 나서 맨 처음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신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개나 양조차도 살아 있는 스승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런 스승을 알아볼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글 와일드 그래스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새해, 새 사람, 새 마음

많은 사람들이 새해와 다른 명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설날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 더 나은 봉사를 하고 우리의 친척과 친구, 국가에 보다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명절을 핑계로 흥청망청 노는 대신 자신의 거친 언행을 품위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모두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난 단지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해왔다면 흘려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또는 잊고 있었다면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시작하라

칭하이 무상사 / 1989년 1월26일 포모사 평후 (원문 중국어)

또 새해가 되었군요. 우리는 이제 뭔가 계획을 바꿔 새로운 일을 하며 기분을 쇄신할 수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 자신의 습관이나 일을 바꾸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일까?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죽을 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까? 누가 이 세상을 떠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등등. 우리는 대체로 너무 분주해 이런 성스러운 의문을 던지거나 탐구하지 못하지만, 올해에는 그러도록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새해를 멋지게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자

칭하이 무상사 / 1994년 1월 1일 태국 방콕 (원문 영어, 중국어)

새해의 행복한 분위기 속에 휩싸여 불우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랑과 헌신의 정신,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한층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 해, 새 사람!

칭하이 무상사 / 1995년 1월 3일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영어)

여러분이 멋지고 새롭고 신선한 출발을 하기를, 그리고 새로운 자신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두뇌에 해야 할 일을 말하면 두뇌는 몸 안의 세포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요. 자신에게 이를 닦으라고 하면 두뇌의 지시로 손의 세포가 움직이고, 팔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게 원하는 바를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어야만 여러분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육체도 여러분의 것이고, 마음과 두뇌도 여러분 것이니 그들에게 정보와 명령을 전달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할 수 없었거나 실패했던 이유는 두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지 않아 두뇌가 세포들에게 할 일을 말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뇌는 예전의 방식대로 잠자고, 마시고, 먹고, 아이들을 낳고, 일하고, 죽으라고 명령할 뿐이었지요.

지금도 우리는 그 중 어떤 것을 없애지도 않고 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평생 자고 먹다가 생을 마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무의미한 생활로 낭비할 테지요. 그 시간을 자신과 사회에 더 유용하고 보람있으며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보다 나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서든 재미있게 지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건 매우 고지식한 일이지요. 사람들이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들은 두 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다시 또 반복한다면 정말 너무나 거지요! 항상 그 점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다신 이렇게 하지 말자” 하고 적어 놓으세요. 아니면

그 반대로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 “북쪽으로 걷지 말 것”이라고 하는 대신, “남쪽으로 걸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큰소리로 떠들지 말자” 대신 “조용하고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말하자”라는 식으로 가능한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 내용을 자신에게 몇 번 들려주세요. 그런 뒤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못해내면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같은 실수로 사람들을 지겹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올해에 그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목록으로 적어놓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 행동했다면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사과하십시오. 잘못하지 않았다면 사과할 필요 없이 그냥 잊어버리세요. 따지다 보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낭비하게 되니,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으면 잊어버리세요. 그건 대단한 일이 못 됩니다.

물론 명상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세요. 걷거나, 앉거나, 자거나, 일하거나, 휴식시간이나 어느 곳에서든 항상 여러분의 지혜의 중심에 항상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명호들을 외우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앞서서 경계를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보했다면 어디서든 자신의 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성, 창조적 재능, 사람들과 나뉜 모습, 만물에 대한 이해 …… 등에서 자신의 진보를 보게 되지요. 항상 구석에 앉아 빛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빛이 와도 코 고느라 바빠 보지 못할 테고, 소리가 와도 코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명상한다면 이 세상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행한다는 생각도 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힘이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세계평화는 개인의 모범으로 이루어진다

칭하이 무상사 / 1995년 1월 29일 포모사 시후센터 (원문 중국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요! 물론 우리는 새해에 좀더 진보해야 합니다. 매년 ‘더 낫아지는’ 대신 영적으로 ‘더 강인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장자’란 말을 들을 자격이 생기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나아져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일을 했다면 새해에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고치고, 우리의 언행을 개선시켜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승은 여러분에게 어디서건 비위에 맞는 말만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말로 타인을 추켜세우거나,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칭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과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안과 밖이 일치하는 것이 선(禪)이며,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이지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하지만, 예의바르고 고상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조차 우리의 품위 있는 행동을 보고는 자신의 태도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작년에 잘 했다면 새해에는 더더욱 잘해야 하고, 잘하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개선할수록 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와 다른 명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설날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 더 나은 봉사를 하고 우리의 친척과 친구, 국가에 보다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명절을 핑계로 흥청망청 노는 대신 자신의 거친 언행을 품위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모두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난 단지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 그렇게 해왔다면 흘러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또는 잊고 있었다면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호임무, 영적 수행, 친우관계 및 사제관계 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세상에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방법을 써야 하지요. 우리가 품위 있고 고상한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품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청렴해야 하며, 국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국민 복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수행자들이나 스승의 연락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방식을 주의하고, 품위를 갖춰야 하며 개인적인 안락함을 즐기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물론 자녀들을 편안히 잘 돌보아야 하지만 버릇없이 망쳐선 안됩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과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요.

교사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기초적인 A, B, C 수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교사의 가장 큰 의무는 어린이들에게 윤리와 훌륭한 품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에게도 적용되어 그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면, 즉 부모가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자녀들이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면, 가정에서 시작된 평화가 세상에 위대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연재해와 전쟁의 참화는 줄어들 것입니다.

선지식(善知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진보되고 더욱 고상해질 것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동료수행자들은 서로에게 그런 선지식,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



며, 때로는 외부의 비입문자들도 우리에게 아 을 얻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되지요!
 름다움을 상기시켜주는 선생님이 되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성공
 그들의 선한 행동이나 한마디 말을 통해 크게 적인 새해가 되길, 그리고 하루속히 깨달음과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해탈을 얻길 기원합니다.
 것을 봐도 최소한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교훈



때가 되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2년 9월 13일 포모사 시후센터 (원문 중국어)

옛날에 스승에게 차를 끓여 시봉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 다. 그의 스승에게는 진귀한 골동품 차주전자 가 있었는데 스승은 그것을 매우 아꼈습니 다. 한번 은 그 제자가 깊은 삼매에 빠진 나머지 사지에 힘이 없어서 실수로 차주전자를 깨게 되었어요. 그는 너무 도 겁에 질려 스승에게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 다.

차를 내어갈 시간이 되었지만 제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마침내 그는 이 곤경에서 벗어날 멋진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 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안에 들어가 스승에게 예를 갖추 공손히 절을 하곤 물었습니 다. “스승님, 저 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로 오랫동안 번 뇌스러웠습니 다. 계속 여쭙고 싶었지만, 스승님께 심 려를 끼칠까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 다. 제 가 오늘 스승님께 여쭙볼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왜 더 빨리 묻지 않았 느냐? 모르는게 있어서 스승을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니 더냐!”

그래서 제자가 물었지요. “스승님, 왜 만물은 태어 나면 죽어야만 합니까? 왜 죽음이 있는 겁니까? 스승 님과 저도 죽게 되나요? 우리는 아주 신실한 수행자인 데, 그래도 죽어야만 합니까?” 그의 스승은 “그럼, 물 론이지! 석가모니불이나 예수, 공자, 노자도 모두 죽 어야 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따르기 마련이 지!” 라고 대답했습니 다. 그러자 그 제자는 계속해서 물었습니 다. “예외로 죽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스승 은 말했습니 다. “절대로 없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 단다. 때가 되면 죽음은 정확히 온단다.” 그 때 제자는 일어서서 말했습니 다. “스승님께 말씀 드릴 것이 있습 니다. 오늘 스승님의 차주전자가 그 때를 맞이했습니 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오디오 원문으로 모든 유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스승님의 유머를 즐기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video/joke/119>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ght_sound/jokes/119



생일 잔치

관음사자

중국본토에 진리를 전파하던 초기에 나는 이삼일마다 새로운 지역으로 여행해야만 했다. 세탁기에서 막 꺼낸 젖은 옷가지가 다음 방문지에 도착해서야 마르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 동수들이 요리해준 채식 요리는 형편없이 거칠고 맛이 없었지만, 나는 신의 끊임없는 축복으로 영적인 활력이 충만해 있었다.

나와 다른 한 사형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로양(洛陽)거리를 가로질러 단체명상에 참가하곤 했다. 단체명상이 있던 다음날, 나와 동행하던 그 사형이 문득 이렇게 말했다. “방금 전 내가 삼매에 들

었을 때, 스승님이 벽에 걸린 세 장의 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스승님의 화신이 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계신 모습도 보였어요.” 우리가 스승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여러 동수들이 서로 조리법을 알려주면서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음식 냄새에 나는 몹시 시장기를 느꼈다. 우리는 그 날 풍성한 잔치를 벌였고 나는 마음 속 깊이 만족감을 느꼈다. 이토록 마음껏 즐겨본 것은 실로 오랜만이라 나는 조용히 스승님과 신께 감사드렸다.

며칠 뒤 나는 그 날이 바로 내 생일이었고, 스승님이 나를 위해서 멋진 파티를 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스승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언제나 세심하게 돌봐주신다. 우리가 내면의 스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모든 뜻은 자연스럽게 성취될 것이다.

깨달은 스승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모든 그의 권속들이 천국에서 함께 내려와 자신과 인연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중국본토의 한 동수는 스승님의 힘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스승의 사진과 함께 스승님의 사진을 뛰어난 영능력자에게 가져가 물어보았다. 비입문자였던 그는 사진을 본 뒤 스승님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 스승의 사진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군요. 그녀를 영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역량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녀의 서적과 출판물 또한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스승으로 궁극의 진리를 증득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입문식 전날, 나는 자신을 정확히 입문식 때 새로운 입문자들에게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가피력을 얻기 위해, 나이 많은 동수 부부에게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와 차례차례 돌려보았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나는 입문식장에 도착했다. 예비입문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갑자기 한 예비입문자

가 소리쳤다. “스승님! 스승님!” 내 몸이 그 순간 스승님의 화신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입문식이 끝난 뒤 몇몇 입문자들이 “관음사자님이 도착했을 때,

정면에 걸린 스승님의 사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셨어요”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천백억 화신을 통해 스승님의 무소부재함을 마음 깊이 느끼곤 스승님께 끝없는 감사를 드렸다.

스승님은 화신을 통해 모든 입문자들을 보호하신다. 우리가 스승님의 비디오나 책에 집중할 때, 우리의 진동은 자연스럽게 고양되어 내면의 스승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러한 현상은 깨달은 스승의 책과 여러 문화적 도구들이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입증



신의 키스

베이징의 매서운 늦가을
날씨에도 구도자들의 열망
은 열렬하여 식을 줄 몰
랐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오전과 오후, 두 차
례의 입문식이 예정된 시
골 마을로 출발했다. 스승님
의 전능한 빛은 방방곡곡 어디에
나 충만해 있었다. 입문식을 시작하기 전, 나는 안뜰
에 앉아서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초목의 싱그러움을
감상하고 있었다. 문득 내 오른뺨에 따뜻한 감촉이 느

껴졌다. 한 살배기 여아가 내 뺨에 뽀뽀를 한 것이
었다. 그리고는 내 주위를 돌며 까르르 웃고는 다른
곳으로 뛰어갔다. 아기 어머니는 “이 애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뽀뽀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말 신기
하군요!”라고 말했다. 나 역시도 이런 식으로 뽀뽀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다. 나중에서야 나는 이해할 수 있
었다. 입문식 날에는 신의 사랑이 끝없이 흘러 넘친
다. 어린이는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인데 그 아기는
채식까지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은 대중에게 봉사
할 때 신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게 상기
시키고 격려하는 스승님의 은총이었던 것이다.

1999년 7월 25일, 일본 전역의 동료수행자들은 오
랜만에 열린 입문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교외에 자
리한 츠쿠이(津久井)센터에 모였다. 멀리 치바현에서
온 한 사저는 오랫동안 단체명상에 참석하지 못했는
데 온갖 장애를 뚫고 입문식에 참석해 자신이 목격한
스승님의 위대한 힘과 잊혀지지 않는 체험을 동수들
과 함께 나누었다.

벽찬 감정에 눈물을 글썽거리던 그녀는 우리에게
3개의 여권과 1000 NT달러 수표 한 묶음을 보여주었
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올해 초, 딸의 실수로 집에 불
이 나서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 목조 기둥은 검게
타버렸고 다다미 역시 재가 되어 버렸다. 집에 돌아와
서 이 참혹한 광경을 본 그녀는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
였다. 그런 뒤 그녀는 세 개의 여권과 천 달러 짜리 수
표몽치가 기적적으로 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위에는 스승님의 사진이 놓여 있
었다. 그 주변을 둘러싼 기둥과 침대가 전소되어 재가
되었는데도 수표는 가장자리만 살짝 그을렸을 뿐이었
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스

승님의 사진이 그 위
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
는 감동으로 목
이 메어 한 마디
도 하지 못했고,
이것이 스승님의

전능한 힘 덕분임을
깨달았다. 남편의 양복
도 그 옆에 걸려 있었지만, 주머
니에 들어있던 여권은 완전히 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
이다.

화재가 나기 전날 밤, 그녀는 갑자기 스승님의 책
들을 친척들에게 줘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고, 즉
시 그대로 실행하였다. 당시에는 이것이 스승님의 책
을 보호하기 위한 직감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동
수들은 앞에 놓인 여권과 수표몽치를 보고 놀라지 않
을 수 없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화재에도 뜨덕 없는 사진

관음사자



마음의 메아리

일본 동수들은 2000년 8월 말과 10월 초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두 차례의 영상 강연회를 개최하여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첫 개최지는 도쿄 이케부쿠로(池袋) 문화회관이었다. 행사 전, 강연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쿄 입문자들은 츠크이 센터에서 동수들이 오랫동안 고대해 온 선이(禪二)를 열어 동경의 분위기를 정착시켰다. 관음사자도 참가한 선에서 동수들이 명상시간을 더 늘릴 것을 제안하여 수십 여명의 동수들은 20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명상을 했다. 많은 동수들이 명상의 즐거움에 빠져 끼니를 모두 걸렀고, 덕분에 일손이 부족한 주방팀의 수고를 크게 덜어주었다. 많은 입문자들은 처음 시도해 본 장시간의 명상을 통해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다. 스승님의 축복을 듬뿍 받은 동수들은 고양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으며, 대화나 식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200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역에서 온 한 입문자 부부는 스승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문득 잠에서 깨어나 날이 새도록 명상하기도 했

다. 선에서 동수들이 보여준 열망과 신실함은 잊을 수 없는 신의 축복을 가져왔다.

8월 29일 문화회관에서 열린 스승님의 영상 강연회에는 백 명이 넘는 청중들과 동수들이 참석했다. 멀리 오사카와 미에 시(市)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한 입문자는 강연장과 청중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진행자들의 몸에서 빛이 가득 발산되는 것을 보기도 했다.

10월 2일 토요일에는 도쿄 항에 위치한 시민회관에서 매우 특별한 흥법활동을 펼쳤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199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자선콘서트의 비디오 상영이었는데, 시민회관의 전문 음향설비는 가슴을 울리는 생생하고 놀라운 음향효과를 제공했다. 많은 청중들이 스승님의 “작별의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며, 동수들 역시 깊은 감동에 잠겼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어머니와 만난 듯,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다. 가슴에 사무치는 가사의 여운에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매혹되었다. 행사가 끝난 뒤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청중들이 이처럼 좋은 법문과 수행단체가 일본 국민들에게 좀더 일찍 알려졌어야 했다고 대답했다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 / 1987년 4월 16일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우리가 성심성의로 영적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참 스승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호기심이 생겨서, 혹은 영적 수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명상이 좋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수행을 따라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참 스승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하고자 결심하고 해탈하고자 한다면, 조만간 스승을 찾게 됩니다.



예언된 메시아를 찾기 위해 세 명의 박사들이 하늘의 밝은 별을 쫓아갈 무렵, 동방박사의 한 사람이었던 알타반도 별자리 연구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하게 된다. 재산을 팔아 사파이어, 루비 그리고 귀중한 진주를 산 알타반은 메시아의 탄생을 보기 위해 세 명의 현자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여행 도중 중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다 현자의 일행을 놓치게 된 알타반은 실망하지 않고 사파이어를 팔아 낙타를 사서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을 계속한다. 당시 요셉의 가족은 헤롯왕의 주적을 피해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헤롯왕의 병사들과 마주치게 된 알타반은 한 남자 아기를 구하기 위해 헤롯왕의 한 군관에게 루비를 주며 아이를 풀어줄 것을 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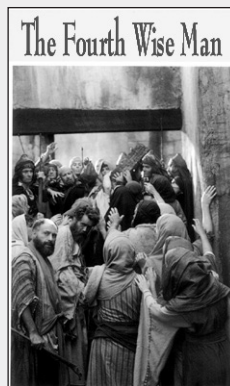
알타반의 시자인 오론테스는 집에 돌아갈 것을 계속 요청하지만, 알타반은 거절한 채 이집트로 여행을 계속한다. 이집트에 도착한 후 그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속의 메시아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다가 친구가 알려준 대로 부자 지역을 떠나 빈민촌을 찾아가던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진주를 도둑맞게 되어 도적의 소굴로 가게 된다. 알타반이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된 한 여인은 진주를 돌려 주며 시력을 잃어가는 그녀의 아이를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본 알타반은 그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머물 것을 결심하고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관개수로 농법을 가르친다.

30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알타반의 오랜 친구인 태그런스가 딸 미첼과 함께 그를 찾아와 알타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네번째 현자

후 유핀 사저 / 포모사 타이베이

오 나의 주님,
당신을 따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하오니
내 소중한
진주보석으로
당신의 면류관을
장엄케 하소서



이 영화를 본 다른 동수들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려 준다. 이미 늙고 몸도 쇠약해진 알타반은 “이제 내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겠구나! 내 마음속의 메시아도 볼 수 없을 거야” 하고 독백을 하며 슬픔에 잠긴다. 오론테스가 그의 실패를 알기를 원치 않은 알타반은 오론테스를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 주려 떠나보낸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예수의 기적을 목격한 오론테스는 알타반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얘기해 주지만, 알타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는 이미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알타반은 그가 가진 진주로 예수를 돕고자 한다. 하지만 상선의 침몰로 인한 부채로 살해당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는 미첼을 우연히 만나 그녀를 구하기 위해 진주를 팔게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알타반은 마지막 희망마저 잃게 된다.

모든 것을 잃은 알타반이 죽어가고 있을 때, 메시아가 그에게 나타난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신가요? 돌아가신 것이 아니셨군요! 오, 나의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전에는 당신에게 바칠 귀중한 선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알타반에게 메시아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시며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헐벗을 때 옷을 주었으며, 내가 갈 곳 없을 때 나를 거두었노라” 하고 말씀하신다. 알타반은 놀라 묻는다. “주여, 제가 언제 당신을 만났습니까? 제가 언제 당신을 돌봤단 말입니까?” 메시아가 대답하길 “무릇 모든 내 형제 자매 중 누구에게라도 행한 것은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결국 알타반은 그의 소원을 이루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쥐잡는 개

칭하이 무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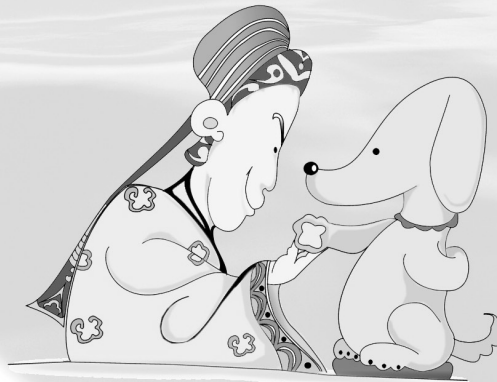
1994년 3월 12일 미국 LA (원문 영어)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
와 삶의 우스
운 측면들을
상기시켜 주
는 우화들이
많이 있습니
다. 쥐를 잡는
개 이야기처럼요.
이 책은 성인들의 농
담을 모아놓은 책이에

요. 조금 전 우리는 성인이 아
닌 사람들의 농담을 들었으니 이번
에는 성인의 이야기, 성인이 한 농담을 들어보
시다. 어쩌면 조금은 무미건조하겠지만, 사람들은 성
인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요. 성인들은 항상 위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우주, 소우주, 대우주, 거대한 국수
(역자 주: 스승님이 발음이 비슷한 대우주(macrocosm)와
마카로니(macaroni)를 얘기하시며 농담하신 것임) 등에 대
해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하지요. 그래서
성인은 청중들 앞에서는 절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아
마 그가 혼자 있을 때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종류의 유머책을 사서는 화장실에 앉아 혼자 읽
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밖으로 나와서는 근엄한 얼굴
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고 말하지요.

그런 성인의 부류에 속하는 성인은 화장실에서 책
을 읽고 가슴이 시원하도록 웃은 뒤엔 밖으로 나와 이
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지요. 여러분이 아무한테도 말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잠시 후에 농담을 읽어 주겠어요.

이 이야기는 쥐잡는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는 고양이만 쥐를 잡을 수 있다고 들어왔는



데, 이 개는 어
떻게 쥐를 잡
을 수 있었을
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손들어 보세
요. 지금은 웃
으면 안됩니다.
이런 ‘진지한 집
회’에서는 웃지 못하
도록 되어 있으니깐요.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교양’
이 있다면 그렇게 웃으면 안되지요.
개가 왜 쥐를 잡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 있어
요? 없다고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은 깨달은 사람
이잖아요?

좋아요, 아주 옛날에 중국에 제나라라는 국가가 있
었어요. 그 나라에는 개의 손금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개 손금쟁이였지요. 그의 재주에
대해 들은 한 이웃이 그에게 쥐를 잡을 수 있는 개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후에야 개 손금쟁이는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는 그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독
일산 목양견(牧羊犬)인데, 아주 훌륭한 최고의 개입니
다.” 그래서 그 이웃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개를 키
웠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웃사람들은 그 개가
쥐를 잡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개는 심지
어 쥐 털조차도 건드리지 않았고 아예 쥐를 거들떠보
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개 손금쟁이에게 찾아가서 그가 개
의 손금을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개가 정



말로 독일 목양견인지 아니면 복경 발발이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개 손금쟁이가 말했어요. “아니, 맞아요. 그 개는 120% 확실한 독일 목양견이에요. 정말 아주 훌륭한 개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개가 양이나 영양을 잡도록 훈련받은 개라는 거죠. 그래서 쥐를 잡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웃들은 말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쥐잡는 개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그 개 손금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한 쪽 구석에 개를 묶어두고 먹을 것을 일절 주지 마세요. 그러면 쥐가 지나갈 때 개는 분명히 쥐를 잡을 겁니다.” 그 후 개는 쥐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개를 자유롭게 풀어줘도 쥐를 잡았어요. 습관이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인간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원래 천국에서 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아직 원치 않은 것이든 모두 가진 전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영광스런 존재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 물질세계로 와서 이 육체의 감옥, 이 조그만 방에 묶여 있지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방이지만 이렇게 …… 내 방은 아주 작아요! (스승님과 청중 웃음) 어쨌든 우리는 수행자니까요. 우린 스스로 직접 경험한 일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쥐를 잡습니다. 이 세상의 쥐는 돈, 명예, 명성, 이윤, 경쟁, 다툼, 전쟁, 잔혹함, 서로 물고 물어뜯기 등 그런 것들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쥐입니다. 그리고 불행

히도 오랫동안 이 물질적인 쇠사슬에 묶여 있던 우리는 그것을 즐기지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이 바로 이렇지요.

이 이야기는 단지 우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도 정말 비참한 ‘개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주 힘들게 일하죠. 어떤 사람은 하루 18시간 일합니다. 많은 자녀를 두었거나 갚아야 할 빚이 많기 때문이지요. 혹은 갑자기 병이나 질환에 걸려서 돈을 탕진한 후 무일푼이 되었다면, 겨우 하루 두 세끼의 식사나 몸을 가릴 몇 벌의 옷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자신의 진아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은 조금씩, 차츰 차츰, 천천히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즉시 개가 쥐잡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이지요. 전에 그 개는 쥐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쥐잡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본래 모습을 기억해야 하며 이 세상의 부정적인 힘에 절대로 굴복해선 안 됩니다. 이 부정적인 힘은 늘 우리를 죄 많고 하찮은 존재로서 성인도 될 수 없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며, 우리가 원하는 건 겨우 몇 벌의 옷과 식량 뿐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하지요.

이 이야기는 아주 훌륭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얘이라 내가 더 할 말이 없군요.



이 이야기의 원문 오디오나 비디오를 즐기려면 다음의 주소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19/st1.htm>



코스타리카 소식

교도소의 포근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코스타리카 동수들이 교도소를 방문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주고 있다



재소자들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주의 깊게 보고
방편법을 배우고 있다.



[산호세] 감사와 행복의 날인 크리스마스에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상 세바스티앙 교도소를 찾아 850명의 수감자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1,000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안에는 티셔츠와 비누, 치약, 양말, 사탕, 크래커, 초콜릿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견본책자가 들어 있었다. 교도소 당국은 우리가 선물을 나눠 줄 수 있도록 대강당 사용을 배려해 주었다. 한 사저가 손에 종을 든 산타클로스 분장하고, 다른 동수들은 모두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와 다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맘껏 즐기게 되었다. 400여 명의 재소자들은 스승님 소개 비디오인 “사랑의 길을 걷다”를 본 후 매우 고양되고 행복해 보였다.

많은 재소자들이 통제구역에 있어 행사에 참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도소 당국의 허가를 얻어 직접 선물을 나눠 주러 들어갔다. 당국에서는 이곳 재소자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위험하다고 했지만 모든 일이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교도경비대에도 선물을 전해주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합창하며 끝마친 이번 행사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교도소 당국은 우리가 방문한 후 탈옥을 자주 시도하던 불안정한 이곳 수감자들이 조용해져 분위기가 훨씬 나아졌다고 전해왔다. 교도소장은 우리의 자비로운 활동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다음 날, “La Prensa Libre”와 “El Diario Extra”의 두 지역신문에서는 우리의 활동을 보도하고 스승님과 전 세계적인 스승님의 봉사활동, 그리고 관음수행단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글을 실었다.

우리는 선물을 나눠 주던 날 재소자들에게 방편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안타깝지만 포기해야 했다. 한 동수는 무지로 인한 잘못된 행동으로 자유를 잃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스승님의 법상 앞에서 그들이 방편법수행을 통해 깨달음과 해탈을 얻어 하루속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했다.

자애로운 스승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다음 날, 관음사가가 교도소에서 방편법 전수가 가능한지 연락인에게 전화로 묻자, 우리는 교도소 당국과 연락을 통해 허락을 얻었다. 명상



과 채식을 좋아하는 그곳 교도소장은 방편법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방편법 전수를 받은 후엔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앞으로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새해 전날 사탕과 크래커를 갖고 교도소를 다시 방문한 우리는 재소자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방편법을 가르쳐 주었다. 비디오 시청 후 관음사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들이 감옥에서도 방편법을 수행하여 영원한 내적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신의 은총이라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방편법을 배

운 사람들은 모두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차서 우리와 악수하며 정말 고맙워했다.

돈과 노력을 통한 이번 활동에서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가슴에서 우러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한동안 센터에 나오지 않던 동수들도 함께 해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행사를 치렀다. 우리는 1000벌의 티셔츠를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해준 의류 공장의 배려에 또 한 번 감동 받았다. 공장 소유자와 그 부인은 나중에 방편법을 배우러 왔고 좋은 체험도 하였다. 어디에나 따뜻함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기쁨이 함께 하길 ……



감사 편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귀중:

2000년 크리스마스 기간 중 저희를 찾아 주신 것에 대해 산호세 교도소 A-1과 A-2의 400여 수감자들이 깊이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보여 주고 선물을 전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에 진정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귀 협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고귀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1위원회 회장 조지 아귀다스 메디아
A-1위원회 부회장 조지 비네스 몬티구도
대리

산호세 교도소장 릭 루이스 마리아노 바란테스 A.

2000년 12월 24일, 산호세
(원문 스페인어)

San José 24 de Diciembre del 2000

Señor
ASOCIACION INTERNACIONAL
DE LA MAESTRA SUPREMA DE
CHINA CHING HAI EN COSTA
RICA.
Atención:
Sr:
Lin Shan Kao
S.
O.

Estimado señor:

En forma atenta me permito saludarlo, y a su vez hacer de su conocimiento; el enorme agradecimiento que los integrantes de los Ambitos A-1 y A-2, que somos más de cuatrocientas personas, del CENTRO INSTITUCIONAL CAI SAN JOSÉ, sentimos hacia esa asociación; en virtud de que con motivo de la navidad del año 2000, nos hayan tomado en cuenta, para brindarnos su cariño mediante la presentación de una corta obra teatral, así como también al hacerle entrega a cada interno de un obsequio. Quedamos altamente agradecidos, y les pedimos que no se aparten nunca de ese sentimiento tan humano, porque nos hacen sentir muy bien al tenerlos en cuenta.

De antelao muy atentamente.

Jorge Vilma Montenegro
Vice PRESIDENTE COMITÉ A-1

Jorge Arguedas Medina
PRESIDENTE COMITÉ A-1

cc: Lic. Mariano Barrantes A
Director Centro Institucional
San José



포모사 소식

청소년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이다

[타이난] 음력설 며칠 전인 지난 1월 17일, 타이난 센터 동수들은 타이난 청소년 센터를 방문해서 그곳의 원장, 직원 그리고 청소년 센터 소속 학생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일주일에 두 번 실시하던 상담일정을 바꿔 2시간 분의 음력설 맞이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한 타이난 동수들은 청소년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 모두에게 과일 바구니를 나눠 주며 훈훈한 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오랜 기간 동수들이 청소년에게 보여준 보살핌과 용기에 감사해 오던 청소년 센터 당국은 특별행사가 끝날 무렵 청소년 센터 황 원장을 통해 “청소년에게 이로움을”이라고 새겨진 상징기를 전달하여 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고, 공연에 참여한 동수들과 직원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음력설 며칠 전 타이난 동수들이 청소년 센터에서 특별공연을 펼치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타이난 청소년 센터의 황원장으로부터 “청소년에게 이로움을”이라고 새겨진 상징기를 전달받다

엘살바도르 약물 치료소에서 온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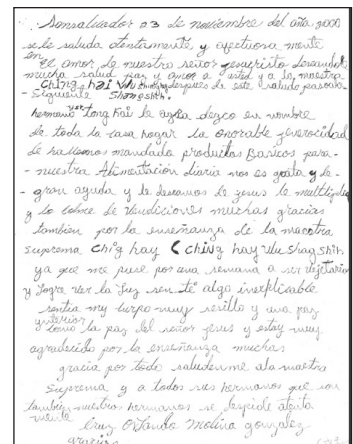
담당자님께 :

예수님의 성스러운 사랑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하며 스승님과 관음사자들의 건강, 평화 그리고 사랑을 기원합니다. 저희에게 꼭 필요했던 일용품들을 보내주신 스승님께 이곳 사람들을 대신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명상법을 전수해 주신 칭하이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째 채식을 하며 명상할 때 내면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을 얻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방편법을 전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스승님과 형제자매인 모든 동수들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원문 스페인어)



모닐라 곤잘레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귀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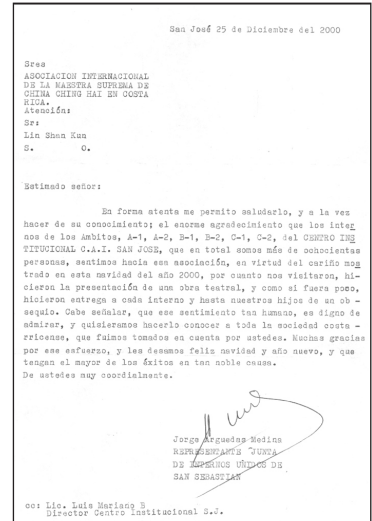
먼저 여러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저희를 방문해 칭하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여 주시고 수감자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8백여 명의 수감자들은 가슴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귀 협회의 인도 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여러분의 고귀한 헌신과 사회적 봉사활동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호세 교도소 운영위원회 대표

조지 아귀다스 미디어

대리 산호세 교도소장 릭 루이스 마리아노 바란테스 A.

2000년 12월 25일, 산호세
(원문 스페인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귀중 :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으로 가득 찬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4일 자유를 잃은 저희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티셔츠와 사탕, 치약, 비누 등이 들어있는 선물을 1천여 개나 보내주신 귀 단체의 관대하고 자비로운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교도소 근무자들에게도 보내 주신 선물에 대해서도 그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비로운 활동은 인류간의 인간으로서의 조화와 사랑의 전형으로 이를 통해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재소자와 교도관에게 전해 주신 선물은 인류간의 결속과 조건 없는 형제애, 그리고 귀 협회의 지원과 격려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호세 교도소장 릭 루이스 마리아노 바란테스 A.

2000년 12월 27일, 산호세
(원문 스페인어)





헝가리 소식

부다페스트의 고귀한 사랑 나누기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센터는 2000년 크리스마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맞이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 전 삼 일 간 음식과 선물을 나눠 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지역 센터 동수들이 나눠 주는 사랑의 선물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다페스트 도시에 모여들었다. 첫날 저녁에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미소와 함께 뜨거운 수프와 차, 방한복과 이불 그리고 양말을 나눠 주었다. 이 소식이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 사이에 점차 퍼지자



부다페스트의 동수들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다

매일 밤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 다음 이틀 동안에는 거의 두 배 정도의 음식이 필요했다.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과 음식과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배급이 끝난 후에도 가지 않고 1999년 부다페스트 강연을 하셨던 스승님을 떠올리며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견본 책자와 전단지를 나눠 주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와 꼭 연락을 취하기 위해 센터 주소와 개방 시간을 알아갔다. 매우 열성적인 한 노숙자는 사흘 내내 쓰레기와 버려진 플라스틱 컵, 접시를 수거하는 청소소에 즐거이 동참하기도 했다. 한 노부인은 우리 단체의 존재와 나눔의 정신에 매우 감동을 받아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체감과 감사함을 주체할 수 없으면서 우리에게 키스와 포옹을 해주었다.

미국 텍사스 소식

크리스마스에 온정을 나누다

[오스틴] 200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스틴 센터에서는 선이(禪二)와 함께 노숙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12월 24일 정오에 선이 끝난 후 150개의 자루에 미리 사 둔 선물을 채웠다. 각 자루에는 모자와 장갑, 양말 두 켤레, 과자와 사탕, 물 한 병 그리고 스승님의 견본 책자가 들어있었다.

우리들은 오스틴 구세군 보호소에 도착해서 보호소 주변에 모여든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고 성탄 축하 인사를 했다. 그리고 보호

소 내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그 곳에도 선물을 보냈다. 보호소 관계자와 노숙자들은 진심 어린 감사를 우리에게 전했다. 젊은 동수들의 참여로 더욱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다.

오스틴 동수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오스틴 구세군 보호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겨울 옷과 음식을 나눠 주고 채식요리를 해주었다. 스승님의 온정과 관심을 그들에게 전할 때마다 우리는 나눔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오스틴 구세군 보호소의 주차장에서 젊은 동수가 선물 분배 소식을 뒤늦게 듣고 온 노숙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있다



오스틴 동수들이 스승님의 사랑을 담아 선물을 포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노숙자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LA]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신실한 사람들은 2천 년 전에 태어난 지혜로운 성인의 탄생을 축하한다. 전설에 의하면 세 명의 현자들이 질푸른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 온 초라한 마구간에는 아기 예수가 가축들의 온기와 자신의 찬란한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한다. 이 세 현자들은 이제 막 태어난 구세주의 발 밑에 금으로 된 선물과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와 놓았다. 이 숭고한 이야기로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하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전통이 생겨났다.

2000년의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LA 센터 동수들은 남가주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연례적으로 해 왔듯이 십일조를 모아서 사랑을 나눠 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3년 전, 산타아나 시에서는 추운 밤이 되어도 집이 없어 헤매고 다니는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아모리 보호소를 만들었다. 노숙자들이 지친 몸을 의지하며 생필품을 얻고 추운 겨울밤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월 초 수용소가 문을 열었다. 보호소에 수용된 사람들에게는 음식과 깔개, 이불 그리고 무료 목욕이 제공된다. 또한 무료 의료 혜택과 직업 상담, 법률 상담과 그 외의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보호소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코니'는 그 수용소를 집으로 삼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목록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모자가 달린 따뜻한 옷옷과 양말 그리고 위생 물품을 120 개의 밝은 청록색 배낭에 담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며칠 전 코니는 노숙자들에게 이 선물들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했다.

선물을 줄줄이 이끌고 보호소에 도착한 동수들은 노숙자들이 저녁 체크인을 하는 동안 밤 공기가 차가운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 밤엔 기온이 1℃까지 내려갔었다.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발견한 많은 사람들은 지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추위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몹시 걱정이 되었다. 한 친절하고 보안 요원은 우리와 사진을 찍고 싶어했다. 그에게 우리 단체를 소개하자 그는 스승님 사진까지 찍었다.

체크인이 완료된 후 코니는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여성들에게 먼저 선물을 분배해 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었다. 노숙자들을 위한 이 소박한 집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찾아왔



산타아나 아모리 보호소의 노숙자 프로그램 책임자와 LA 동수들.



다. 우리가 즐거운 성탄을 축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는 동안 노숙자들의 얼굴엔 지친 시선 대신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여성들은 모두 즉시 배낭을 열어 그들의 선물을 행복하게 살펴봤다. 한 사랑스런 임신부는 커지는 배를 덮을 큰 옷옷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그 날 저녁에는 두 명의 어린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4살 된 귀여운 여자아이로 알록달록한 이불 밑에 잠들어 있었다. 특별히 그 아이를 위해 가져온 따뜻한 옷과 장난감을 주자 그 어머니는 몹시 고마워했다. 옆에 있던 13살 난 남자아이는 포켓몬 겜보이를 하느라 즐거운 나머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연로한 할머니는 선물을 받자 매우 놀란 모습이었다. 다음으로 우린 보호소에 있던 100여 명의 남자들에게도 선물을 나눠 주었다.

레이라는 한 히스패닉 남자는 선물 꾸러미 안에 있는 스승님의 안내책자를 보자마자 우리와 이야기를 하길 원했다. 그는 스승님을 뵙고자 했고 어디에 사는지 물어왔다. 견본 책자와 스승님께 편지할 수 있는 주소를 주자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했다.

그 날 밤 아모리 보호소에 있는 노숙자들은 선물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다. 하지만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멋지다는 걸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얻은 셈이었다.

한국 소식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요리축제

[서울] 2000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 동수들은 SM 채식 식당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크리스마스 특별 바자회와 공연 행사를 가졌다. 손님들에게 인도 밀크 티와 국화차 같은 특별하고 독특한 차를 대접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날의 특별 요리엔 서울 센터의 연락인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도 포함되었다. 연락인들이 손수 준비한 요리를 먹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울 동수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동수들과 손님들이 부른 여러 노래들은 모든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즐겁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즐겁고 의미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가질 것을 제안했다.



SM 채식 식당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특별 바자회에서 같이 노래하다.



손님들이 특별한 차들을 시음하고 있다



포모사 소식

추운 날씨를 녹인 사랑

[지룽] 2000년 12월 17일 지룽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겨울을 춥게 지내고 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따뜻한 행사를 가졌다. 동수들은 몸이 불편한 노인, 혼자 사는 빈곤한 노인, 도시의 노숙자들에게 담요와 따뜻한 옷, 쌀 그리고 구호 기금을 전달했다. 우리와 알고 지낸 지 오래 된 한 외로운 노인은 2000년 9월 지룽을 초토화시킨 태풍 상시엔의 이재민으로 우리의 월례 자선 행사의 수혜자이기도 했다. 그 노인은 동수들의 정기적인 방문과 도움에 매우 감사해했다.

동수들은 난광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집 없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외투와 바지를 나눠 주었다. 그 따뜻한 겨울옷들은 본격적인 겨울이



지룽 동수들이 따뜻한 옷을 난광 병원의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있다

시작되기 전에 전달되었다. 또한 양로원도 방문하여 그 곳의 불우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스승님의 염려와 관심을 전달했다. .

따뜻한 인연

[타이충] 일 년 전, 추 사저의 연로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얼마 후 그녀의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그녀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졌다. 집이 엉망이 되자 추 사저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그로 인해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타이충 센터는 즉시 추 사저의 가족을 돕기 위해 저소득 가구

보조금을 신청하고 2000년 11월 15일에는 스승님의 사랑과 염려를 그들에게 전했다. 추 노인은 너무나 감동하여 그 지역 동수들에게 그를 대신해 스승님께 스승님의 자비와 너그러움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스승님의 사랑은 유쾌한 기적

[타이퉁] 2000년 12월 16일 타이퉁 동수들은 포모사 동해안의 타우산 기슭에 사는 노인 중풍 환자를 정기 방문했다. 그는 뇌일혈로 여러 해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2년 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지역 대표가 그를 매달 방문하여 생활비를 제공해 주기 시작했다. 스승님의 절대적 사랑과 축복으로 20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던 노인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씩 돌아다닐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번에 방문했을 때 그에게 특별히 시후센터에서 보내온 따뜻한 겨울 모자를 씌워 주자 그의 얼굴에 빛나는 미소가 감돌았다.

동수들은 다롄항의 티엔 씨도 방문했다. 그들은 구호금을 보조해



타이퉁 동수들이 주기적으로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있다



주기 위해 지난 번 방문했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해 보였는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어둡고 힘이 없어 보였으며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음식 주입기와 배설물 배출관을 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수들과 의사소통도 하며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그의 가족은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했고 경의의 표시로 자주 “나무 칭하이 무상사”를 암송했다. 특히 그들의 아이들이 아주 귀여웠는데, 동수들이 오는 걸 보면, “저기 칭하이 무상사께서 오신다!” 하고 외치곤 했다. 반가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타우향에 사는 첩씨는 중풍에 걸려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장기간의 부종으로 인한 혈액 순환이 안 돼 고생하고 있었다. 다리의 통증을 덜어주고자 언젠가 한 사저가 특별히 만들어진 건강 양말을 사 드린 적이 있었다. 그 양말을 신고 난 후 차도가 좀 있자 첩씨는 스승님에



한 연로한 병자가 시후 센터에서 기증한 겨울 모자를 쓰고 타이둥 동수들과 사진을 찍다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랑으로 세상의 외로운 구석을 비추다

[타이난] 2000년 12월 23일 추운 겨울이 찾아오자 타이난 센터는 신잉, 리우잉, 텅산, 쉬에지아 그리고 리우지아 근처의 빈곤가정을 위해 따뜻한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를 하기 전 동수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조사를 했다.

거기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가정은 너무 가난해 사실상 아무 가구도 없이 원시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한 가정은 가족이 모두 정신지체자였으며, 혼자서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는 무력한 과부, 시각장애 독거 노인도 있었다. 한 부부는 아들이 다쳐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였고, 또 다른 부부는 정신이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었다.

이 막막한 상황을 접하고 가슴 아파진 동수들은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포옹을 해주며 그들이 쏟아 내는 고민들을 모두 들어주었다. 우리들이 쌀과 분유, 식용유, 과자, 옷, 모자 등 여러 필수품들과 함께 스승님의 잡지 견본 책자를 가지고 와서 새해 인사를 하자 그 불행한 친구들의 얼굴이 감사의 마음으로 밝아지는 게 보였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께 정말 감사 드렸으며 아울러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도



한 할머니가 동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홀로 사는 한 노인이 동수들의 방문에 기쁨과 놀라움을 표하다

움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Deng열병 퇴치 운동에 미화 5만 달러를 기증하다

영 수 증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엘살바도르에 퍼진 Deng열병 퇴치를 위해 미화 5만 달러를 기증하였기에 이에 영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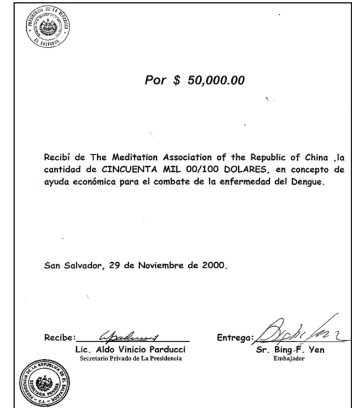
수령: 엘살바도르 공화국 대통령 비서실장

릭 알도 비니치오 팔두치

지불: 재 엘살바도르 중화민국 대사 옌 빙팡

날짜: 2000년 11월 29일

장소: 산살바도르 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엘살바도르 구조활동

(자세한 내용은 117호 잡지 참조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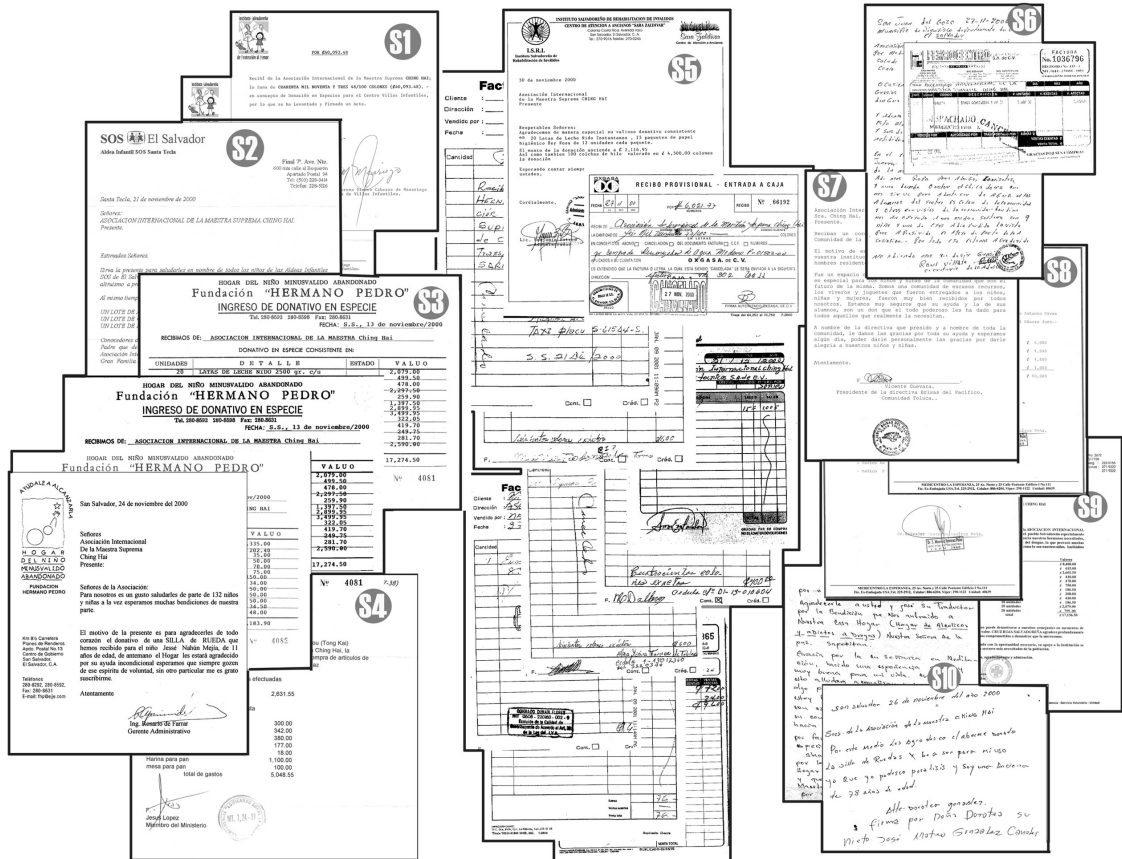
내역	관련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표2의 감사서한을 참고바람)	금액	부록
식품(과자, 사탕, 채식식품)	고아원 3곳, 어촌 3곳, 산간지방 1곳, 양로원, 약물재활센터	Ø 75,401.45	S-A
완구	고아원 3곳, 어촌 2곳, 산간지방 1곳	17,570.75	S-B
문구	산간지방 1곳, 고아원 2곳, 톨루카 해변지역	5,245.00	S-C
의약품	적십자, 고아원 2곳, 어촌 2곳, 카톨릭 병원	29,380.55	S-D
의복, 침대보, 천, 매트리스	어촌 2곳, 산간지방, 양로원, 고아원	23,657.75	S-E
의료기구(휠체어, 혈압측정기, 청진기, 정수기)	정신지체어린이 고아원 2곳, 고아원 2곳, 양로원, 환자 3명	19,261.80	S-F
치약, 칫솔, 일용품	어촌, 산간지방, 약물재활센터	1,911.40	S-G
분유, 화장지	양로원	2,116.95	S-H
어린이 치료비	CESTA, 골절어린이, 시각장애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	16,050.00	S-I
주방용품	고아원 1곳	5,358.75	S-J
크리스마스 트리,	어촌	1,837.73	S-K
전구, 장식품, 비디오테이프	지역방송국, 신문사	2,264.00	S-L
잡비(식품, 문구, 전화요금, 항공요금, 교통숙박비)	작업팀	24,286.10	S-M
합계: Ø 224,342.23 (US\$25,786.46)			



표2 도움을 받은 개인 및 단체의 감사편지

발신인	구제내용	부록
성 마틴 영아원	식품, 과자, 사탕, 완구, 운동기구, 주방용품, 의약품, 매트리스, 크리스마스장식품	S1
산타테클라 SOS영아원	식품, 사탕, 과자, 책, 크리스마스 장식품	S2
장애 어린이의 집	식품, 사탕, 과자, 일용품, 휠체어	S3
평화의 여성의 집	식품, 면도기, 세제	S4
아실름 사라 잘디바	정수기, 화장지, 분유, 시리얼, 사탕, 침대보, 천	S5
장애자 센터		
상 주앙 델고조	양수기	S6
톨루카 해변지역	식품, 사탕, 과자, 완구, 문구	S7
CESTA	골절어린이 치료비	S8
적십자	분유, 시리얼, 의약품	S9
개인 가정	휠체어3개, 심장검사를 받은 어린이 안과치료를 받은 여자아이	S10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엘살바도르 구호활동에 감사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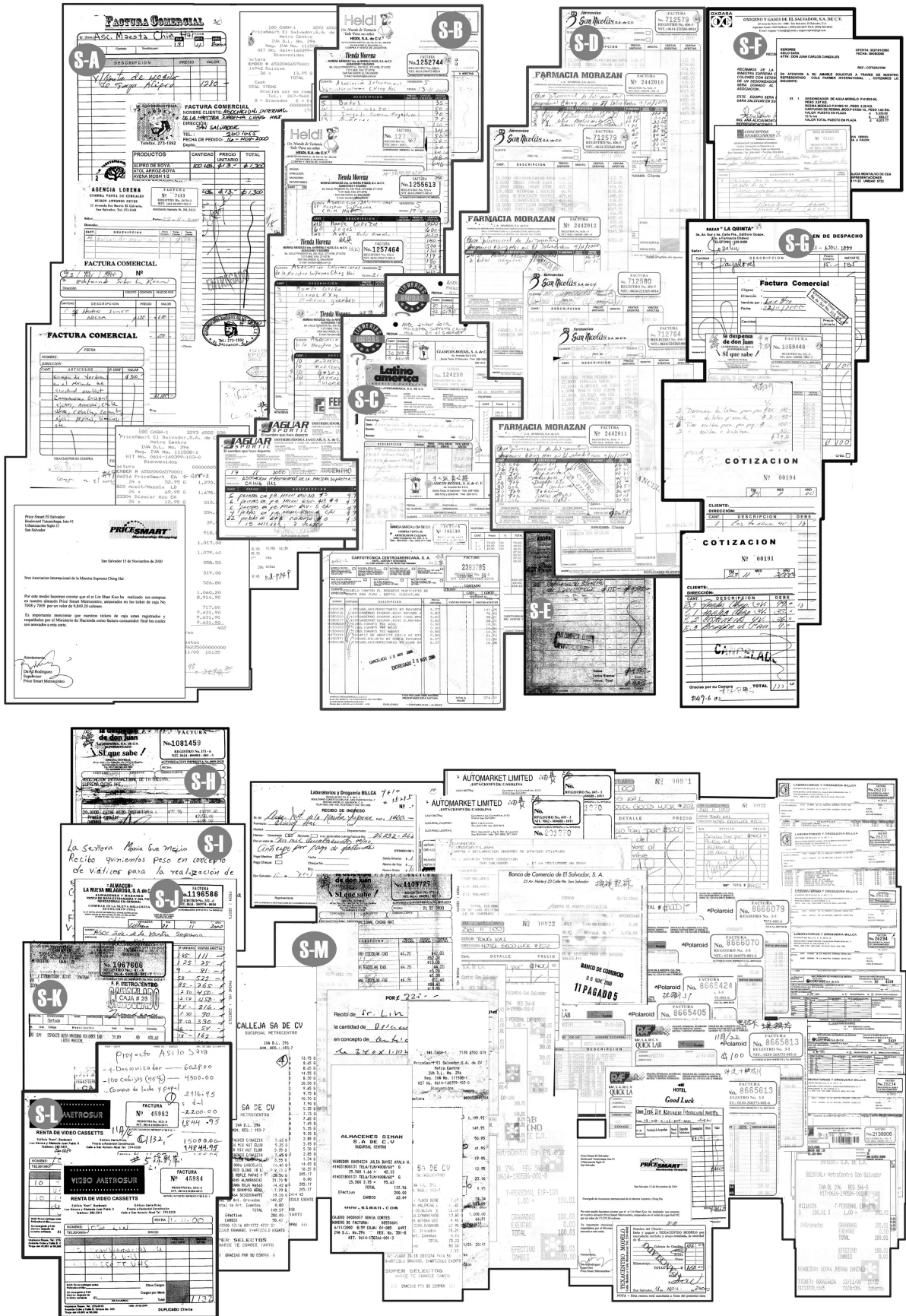


표1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에서 진행된 각종활동 지출내역 (단위:대만달러)

장 소	일 자	활 동 내 용	금 액	부록
타이베이	2000.11.5	태풍 상시엔, 시치 홍수로 인한 이재민에게 침낭과 식품, 생수 등 구조물자와 구조금 기증	307,615	A
		지룽시 정부와 지룽시 치투사무소로부터 받은 태풍 상시엔 구조활동에 대한 감사서한		B
화 련	2000.11.17	화련 여자교도소를 방문, 영성세미나와 명상법 지도	0	
타이베이	2000.11.19	다츠 초등학교 학예기금과 묘목기금 기부	50,000	C
		다츠 초등학교의 감사서한		D
타 이 난	2000.11.19	장잉 기독교대학 교육연합회에서 주관한 바자회참가,	14,515	E
		당일 수익금 전액을 타이난 경찰서와 타이난 경찰 친목회에 기증, 찬조금 영수증 당일 지출비용	6,150	F
		장잉 기독교대학 교육연합회의 감사서한		G
미아오리	2000.12.3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시후향사무소에서 주관한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작업 동참(자원봉사)	0	
타 이 난	2000.12.16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타이난시 환경보호국이 주관한 타이난 골든코스트 청소작업 동참(자원봉사)	0	
타 이 난	2000.12.27	타이난 시 주변의 빈곤가정과 노숙자에게 식품과 옷 지원	77,930	H
평 후	2000.12.17	평후 가정돕기에서 주관한 바자회에 참가,	3,400	I
		당일 수익금을 빈곤가정 학생을 위한 평후 가정돕기 기관에 기증 당일 지출내역	3,445	J
지 룽	2000.12.17	지룽 난광병원에 수용된 노숙자, 인즈 양로원의 극빈 노인들에게 음식과 옷 제공	6,655	K
타이베이	2000.12.29	타이베이시 룽산 중학교 야간등 설비지원(2000.12.9부터 2001.3.8)	30,000	L
진 먼	2000.12.31	진먼 현립문화센터에서 열린 청하이 무상사 비디오 강연회와 영성 세미나, 예술작품 전시회 지원	52,725	M
합계			NT \$ 542,840	

표2 2000년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극빈가정돕기 지출내역

(단위 : 대만달러)

	2000년 11월		2000년 12월		
지 역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부록
지 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7	18,000	8	22,000	2
타 오 웬	1	2,000	1	2,000	3
신 주	1	3,000	1	3,000	4
미아오리	3	9,000	3	9,000	5
타 이 쯡	8	26,000	8	26,000	6
난 토 우	6	23,000	6	23,000	7
치 아 이	6	13,000	6	13,000	8
타 이 난			1	4,000	9
카 오 숭	3	9,000	3	9,000	10
타 이 퉁	4	10,000	4	10,000	11
평 후	2	4,000	2	4,000	12
화 련			1	5,000	13
월별합계	42가구	NT \$ 119,000	45가구	NT \$ 132,000	
총계 NT \$ 251,000					



표1, 2에서 보듯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자선활동 총액은 NT\$793,840(미화 약 24,055.76 달러)에 이른다

2000. 1~2월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 전세계 자선 및 재난구호 활동 요약

(단위 : 달러)

수혜국	일 시	항 목	지 출 금 액	미국달러로 환산한	관련기사 뉴스잡지
포 모 사	2000.10	시후 내 재난구호를 위해 미아오리 소방서에 경소방차 기증	NT441,120	13,367.27	118
포 모 사	2000.11	태풍 상시엔, 시즈의 홍수 재난구조를 위한 기금과 구호물자 지원	NT307,615	9,321.67	119
포 모 사	2000.01-12	매월 정기적인 극빈가정 방문	NT1,442,125.00	43,700.36	110, 112, 114 118, 119
포 모 사	2000.01-12	자선 및 공공활동	NT645,464	19,559.51	110, 112, 114 118, 119
말 레 시 아	2000.07	폐낭 조지타운 화재로 인한 중국인 이재민 돕기	RM4,539.95	1,200	117
말 레 시 아	2000.08	폐낭, 조지타운 화재로 인한 회교이재민 돕기	RM3,053.68	808	117
어 올 락	2000.01	미국, 캐나다, 호주 동수들의 광둥아이와 덕포우의 홍수이재민 돕기	US25,964.00	25,964.00	110
캐 나 다	2000.01-02	음력설 불우이웃 돕기	US\$3,000.00	3,000.00	110
엘살바도르	2000.10	탱크열병 퇴치운동기금	US\$50,000.00	50,000.00	119
엘살바도르	2000.10-11	극빈가정에 구호물자 및 구호기금 지원	Ø224,342.23	25,786.46	119
총액 US\$192,707.27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에서 진행된 각종 자선 활동 영수증





A collage of various documents, including financial statements, receipts, and official forms, arranged in a grid-like fashion. The documents are labeled with letters A through M. The documents include:

- A:** Financial statements from 'makro' and 'THE SUPREME BUDIST CHUNG BAI INTERNATIONAL ASSOCIATION'.
- B:** A letter from '基隆市政府感謝狀' (Keelung City Government Letter of Appreciation).
- C:**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D:**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E:**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F:**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G:**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H:**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I:**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J:**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K:**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L:**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 M:** A receipt from '收款證明單 NO. 881388'.



포모사 사람들이 재소자들에게 선물을 안겨준다

2000년 12월 30일자
El Diario Extra of Costa Rica
(원문 스페인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이 상 세바스티앙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 세바스티앙 교도소의 1천여 재소자들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부터 선물을 받다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 상 세바스티앙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속옷과 양말, 사탕, 치약, 비누 등의 일용품이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SMCH국제협회로부터 전달받았다. 회원들은 칭하이 스승의 가르침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해 재소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교도소 당국은 SMCH 협회 대리인인 관음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박애활동을 통해 영적 스승으로, 지혜와 자비 그리고 큰사랑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또한 세계평화상과 미국 명예시민상 등의 상들을 수상하였다. 뉴욕과 제네바의 UN 강연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초청을 받아 지혜의 가르침을 나눠 왔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세계 종교회의 등의 많은 중요 국제 행사에 참여해왔다

포모사에서 덴그열병 퇴치운동을 지원하다

(원문 스페인어)

중화민국(ROC)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엘살바도르의 덴그열병 퇴치를 위해 미화 총 161,000달러를 기부했다.

기부금에는 중화민국 자선 사업의 미화 10만 달러와 함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5만 달러, 중화민국 적십자의 1만 달러, 키와니 국제 협회 ROC지부의 1천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금은 엘살바도르의 덴그열병에 퇴치에 필요한 의료 기구와 설비 구입에 쓰일 것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이 기부금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2000년 11월 28일자
엘살바도르 월드 이브닝 뉴스



2000년 11월 28일자
엘살바도르 그래픽 프레스





최고의 선물

구술 : 주이리엔 홍 사저, 캐나다 토론토
기록 : 스코트 리브, 캐나다 채담 (원문 영어)



나의 아버지는 스승님에 대한 신심이 강했지만 연세 때문에 입문하실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 아버지의 암 증세가 악화되자 그 신실함을 아신 스승님이 아버지의 지혜안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오로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세 명의 가족의 빛을 볼 수 있었고 고기를 먹는 사람을 접했을 때는 불편해 하며 그들의 오로라가 매우 어둡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또 채식을 하더라도 명상을 하지 않으면 빛이 밝지 않다고도 하셨다.

이로 인해 인생에서 수행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신 아버지는 관음법문에 대해서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빛은 더욱 커지며 특히 단체명상을 하고 온 후에는 우리 빛이 당신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명상을 하고 단체명상에도 자주 가며 '게으른 사저'에서 '말 잘 듣는 수행자'로 변하게 되었다.

하루는 내게서 신이라 여겨질 만큼 밝은 오로라를 보고 놀라워하신 아버지는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실 수 있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는 “스승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는 매우 성스러운 음악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이것이 천상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셨다. 어머니는 임종 시 아버지의 얼굴 혈색이 좋아져 꼭 살아 있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얼굴에 웃음을 띤 채 이 물질 세계를 떠나가셨다. 아버지는 관음법문 수행자인 우리 셋을 천국에서 온 사자로 생각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야말로 우리에게 영적 진리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언제나 스승님의 축복과 보살핌 속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음법문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없다.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 / 1986년 12월 1일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천국은 너무도 행복해서 영적 수행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지옥 역시 너무 고통스러워 영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지요. 사바세계에는 고통과 기쁨, 오해, 무지, 지혜, 깨달음, 깨닫지 못함 등 다른 많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빠르게 배우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경험할 충분한 재료를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성인이 되도록 수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아주 소중하며,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 나온 책

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세상

새천년 음악적 계기



1998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유명한 음악행사는 많은 화제를 낳았다. 시원하고 맑디맑은 물줄기가 산꼭대기에서 계곡을 타고 굽이쳐 내려오듯 이 고양된 음악 작품들은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력과 무한한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 가슴에 깊게 스며들어 온다. 독자들로 하여금 더 자세히 즐기고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성대한 음악행사의 가슴 떨리는 음악과 절묘한 공연들을 훌륭하게 기록한 책이 발간되었다. 중국어와 영어, 베트남어로 발간된 전체 216쪽 짜리의 이 아름다운 책은 스승님의 시와 아카데미와 에미상 수상 경력 작곡가들의 선율이 합치되어 완벽하게 만들어진 행사 당일 밤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멋지게 편집해 놓았다. 이 책의 특별한 하이라이트는 “평화의 구도자”의 완전한 원본으로 이것 역시 아카데미와 에미상 수상 경력자 프레드 칼린에 의해 만들어진 놀라운 오케스트라의 시적 드라마의 완전원본이다. 또한 독자들은 할리우드 작곡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유명인들이 스승님의 감화적인 시들과 고무적인 음악적 작품들, 그리고 매혹적인 사진들에 관해 평한 말들을 특별히 만나볼 수 있다. 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세상이라는 이 음악 소장품은 음악이나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작품이다.



"나비의 꿈" 속에서 당신을 만나요

포모사 동수 평 페이 (원문 중국어)

우리 함께 천국에 간 듯 해요
영원하고도 깊은 사랑에 잠긴 그곳
사랑의 감동으로 순간 순간 당신의 숨결이 느껴져요
당신의 숨결 하나 하나
깊은 열망을 일깨워 높이 파도치게 했지요
당신의 숨결 하나 하나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사랑의 파도를 휘젓는군요

가만히 숨을 멈추고 뒤돌아보면
희미하게 사라진 시들
나의 느낌은 그저 흘러만 가는 물결
저항할 수 없는 삶의 급류처럼 굽이쳐 흐르지요
맑은 샘터로 저를 데려가
지저귀는 새소리 시냇물의 속삭임을 듣고
룩키 산맥에 저를 살며시 내려주시어
귀엽고 애처로운 새끼 사슴에 낚을 잃고
성인들이 산책하는 경외의 히말라야로
저를 들어 올려주시고

충만한 사랑 가득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안아주시고
억겁동안 그려온 그리운 고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죠.
머물러야 하나요, 떠나야 하나요?
결정하기 힘들어요
삶의 덧없는 변화에 눈뜬 나는 더욱 무력해졌어요.
이 참을 수 없는 고통
당신의 것인가요, 저의 것인가요?
뜨거운 눈물
당신인가요, 저인가요?

사랑은 바다 속에, 강물 속에, 시냇물 속에 흐르고
웁은 것과 그른 것, 평범함과 특별함, 달콤함과 쓰라림,
나의 모든 의지는 어느 날 감사로 바뀌네
시련은 유익한 거름,
즐거움 웃음은 마음을 적시는 감로의 비,
모든 의지는 천상을 그리며
찬란한 빛으로 피어나네



새로 나온 책

스승님 시집 “나비의 꿈”

나비의 꿈이라는 시집에 있는 각각의 시에서 스승님은 커다란 깨달음을 거쳐 천상에서의 여정에서 겪었던 영적 자취를 노래하고 낭만적인 사랑과 영적인 헌신에 관한 내면의 가장 깊은 느낌들을 스케치하면서 스승님의 서정적인 시 재능은 빛을 낸다. 이 작품들 속에 있는 각각의 시구들은 읽는 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뿐 아니라 각각의 시들은 가슴을 적시는 멜로디와 아름다운 그림들로 채워져 있다.

나비의 꿈은 어울락(베트남)어로 출시된 후 현재 영어판으로도 나와있다. 우아하고 생기가 가득 차 있으며 의미가 있는 이시들은 시가 있는 내면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세속적 세계에 있는 우리들을 무한하고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준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권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줄 선물로 또 한 권을 준비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이 책의 시와 더불어 있는 생생한 사진들을 보려면 아래 있는 주소로 방문해 보길 바란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latest/butterfly/index.htm> (포모사, 영어 지원)
<http://www.godsdirectcontact.org/poetry/> (미국, 영어 지원)